

“광주 지방의원 잇단 비위 규탄, 윤리 강화·엄정 수사를”

광주시민사회 “잇따른 의원 비위에 ‘제 식구 감싸기’ 일관” 성토 징계 기준 등 윤리규정강화 요구...비위 의원 추가 고발도 검토

광주 시민사회가 지방의회의 잇단 권력형 비위와 ‘숨방망이’ 징계 조치에 대해 의원 윤리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또 비위 의원에 대한 엄정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참여자치21 등 10개 시민단체·기관은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비위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 반칙, 특권 의식, 이권 개입 등의 단어가 지방의원들의 이미지 중 하나가 돼 안타깝다”며 “지방의회의 비위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

로 시민 염원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북구의회는 경우, 수의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 관련 부적절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3명에게 ‘공개 사과’ 징계 의결에 그쳤다. 일부 의원은 상정된 징계안보다 낮은 수정안을 올리기도 했다”며 “잇단 비위에 대한 가벼운 징계는 지역사회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비위·비윤리적 행동, 의회 자정 노력 상실은 비단 북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지방의원들의 비위를 조목 조목 짚었다.

단체들은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시 의원 ▲공직자에게 아들 운영 카페 이용을 강요한



참여자치21 등 광주 지역 10개 시민단체·기관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원들의 일탈·비위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광산구 의원 ▲홍보 예산 구입 기념품 독식해 사적 유용한 서구의원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 “시·구의회가 윤리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비위에 대한 징계 적용 기준과 양형 세칙을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광주시·북구의회가 설치기로 한 ‘민간 참여 윤리자문위원회’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위의원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도 거듭 역설했다.

단체들은 “여론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비위 의원 관련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적극 수사해달라”며 “새롭게 비위 사실이 드러난 의원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또다른 비위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추가 수사의여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자치21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서선욱기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16일 청사 8층 중회의실에서 김현진(전 관산남초)·조창익(전 해남제일중)·정영미(전 고흥산업과학교) 교사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전남교육청, 전교조 해직교사 3명 복직 발령

김현진·조창익·정영미 교사 5년 만에 교단 복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직권면직됐던 전남지역 교사 3명이 5년여 만에 복직발령을 받고 교단에 복귀했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청사 8층 중회의실에서 김현진(전 관산남초)·조창익(전 해남제일중)·정영미(전 고흥산업과학교) 교사에게 복직 발령장을 전달했다.

이들 3명의 교사는 2016년 1월21일자로 직권 면직됐다. 도교육청의 이날 복직 발령에 따라 17일부터 교단에 다시 선다.

김 교사는 광양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조 교사는 해남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정 교사는 고흥고등학교로 각각 발령 받았다.

해직 당시 조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장을, 김 교사는 전교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

장을, 정 교사는 전교조 본부 조직직장을 맡았다.

도교육청은 이들 세 명의 교사가 부당한 직권면직으로 받았던 행·재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원상 회복할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온 만큼 함께 희망을 일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며, 교육부는 2016년 1월21일 이들 세 명을 포함해 학교로의 복귀명령을 거부한 34명의 교사를 직권 면직했다.

최이슬기자

광양경찰, 청소년 보호에 적극...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

광양 소년범 범죄 발생률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

광양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장기간 휴업중인 학생들의 청소년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청소년범죄 예방 활동으로 버스미디어 모니터(350여대) 송출활용 및 광양 내 범죄다발지역 7개소 현수막 설치, 아파트 단지내 스티커 1000매 부착 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광양 소년범 범죄 발생률은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하였다.

또한 장기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 등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광양 관내 교사 및 학생 252명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중호 광양경찰서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특별예방교육 및 청소년 야간 선도와 같은 다양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청소년지원활동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벌쏘임 ‘경보’...광주 소방 빅데이터 “각별히 조심할 때”

쌍살벌·등검은말벌 순...말벌류가 가장 많아

광주지역에 벌쏘임 경보가 발령됐다. 벌쏘임 경보는 벌쏘임 사고가 주 370건 이상, 벌집 제거 출동이 주 1만건 이상, 2주 연속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발령된다.

16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벌쏘임 사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말벌은 주별 평균 최고온도가 27~28℃일 때 교미와 여왕벌 육성, 애벌레 육아 등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모두 1665건으로, 종류별로는 말벌류가 1381건으로 가장 많고, 쌍살벌 749건(45%), 외래종인 등검은말벌 344건(20.7%), 말벌 281건(17%), 장수말벌 7건(0.4%)순이었다. 말벌류 외에는 땅벌 20건(1%)과 기타 꿀벌·나비벌 264건(16%) 등이 다.

쌍살벌은 4월부터 출현해서 6월 53건, 7월 139건, 8월 537건으로 8월에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고, 등검은말벌과 말벌은 5월부터 출현해 6월 43건, 7월 231건, 8월 336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10월까지도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말벌은 7월부터 출현해 9~10월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이 신고 접수된 쌍살벌은 국내에서 가장 흔하며, 도심에서 많이 발생하는 등검은말벌은 외래종으로 도심 가로수나 아파트 지붕 등에 집을 짓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 매우 위협적이다.

특히, 장수말벌은 독성이 가장 강한 벌로 땅속이나 무덤 주변에 집을 짓기 때문에 가을철 산행이나 벌초 시 벌집을 건드려 벌에 쏘이는



도로변 숲 벌집제거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최민철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벌초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벌초작업 전에 무덤 주변 벌의 왕복비행을 관찰하고, 무덤에 구멍이나 흙무더기가 있으면 장수말벌의 동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변을 꼭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